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12, 사무엘 상 18-20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12회기, 사무엘상 18장,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음입니다. 사무엘상 19장과 20장, 다윗의 아홉 가지 삶.

다음 강의에서는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이라는 많은 자료를 다룰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성경을 꺼내서 이 장들을 읽어서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내용은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될 것이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윗의 왕권과 왕조를 유지하고 사무엘의 통치에 반대하기 위해 다윗을 살해하려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8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제목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장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분명히 주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에 이르면 나는 이것을 다윗의 9개의 삶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시도할 것이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9개의 다른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20장. 그래서 주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지만,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직접적인 개입이 다윗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그럼 18장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대승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대승을 시작해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본문 18장 1절의 말씀대로 다윗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고 실제로 다윗에게 겹옷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가 왕자이자 왕의 아들이며 왕좌의 다음 서열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의 왕자의 예복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왕조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서,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동조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나단이 사울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포일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기억하신다면 조나단은 문학적 포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불리한 존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왕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서 왕좌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에 반대합니다.

반면에 조나단은 현실을 인식하고 이스라엘의 안녕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돕기로 약속한 일종의 상호 합의였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일종의 동성애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현대적 사고를 본문에 부과한 것입니다. 텍스트가 이를 뒷받침할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장의 모든 사람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예, 마이클이 사울의 딸인 데이비드를 사랑할 때 그것은 낭만적이고 어쩌면 성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에게 충성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충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서 사랑에 대한 강조점은 충성심과 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망입니다. 우리는 또한 18장 5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더라도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에게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군대와 장교들은 이 모든 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18장 6절에 이르면 일종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때로 돌아갑니다. 여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흥겨운 노래와 소고와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사로서 사울의 용맹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는 전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수만 명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물 한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들은 David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래에는 다윗이 사울을 능가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 않을까요? 사울은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이 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블레셋 용사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처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글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사울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화가 났고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비드에게 수만 명의 공로를 인정했고 나에게는 단지 수천 명의 공로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왕국 외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에게서 왕좌를 빼앗기 직전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한 큰 승리는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축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갔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평소처럼 거짓말쟁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창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내가 David를 벽에 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이 그를 피했다고 알려줍니다. 다윗은 창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두 번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이번 기회에 그에게 두 번 던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 후반에 나올 또 다른 창던지기 사건을 기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매우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는 다윗에 관한 한 매우 위험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악령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울이 이 악한 영의 세력 아래 있을 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등하셔서 악령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울이 그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변덕스럽고 살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활력을 주는 사람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주제적 진술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종류의 진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수업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주요 주제를 요약하는 구절을 지적했습니다. 17장에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나단이 말했듯이.

이것이 이 장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종류의 진술을 찾아보세요. 18.12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지금 이 장들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서의 이 부분이 다윗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빗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며 우리가 그에 대해 사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을 옹호하는 기독교 변증학에서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이 정말로 주님께 버림받았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다윗을 위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 측면에서 사울 가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윗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장을 거듭할수록 이러한 대조가 전개될 것입니다.

나중에 특히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집을 멸하려 했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아마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베냐민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 왕조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원래의 맥락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가 선택받은 왕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장마다 다윗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빗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책 후반부에서 실패하더라도 끔찍한 죄와 간음, 살인을 저지를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처럼 그를 제쳐두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과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와 같은 진술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나 사울을 떠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시고 그에게 천 명을 지휘하게 하십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하는 일은 모두 성공이다. 우리는 14절에서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그들을 이끌었음이라.

그래서 여기에 충성심에 더 초점을 맞춘 사랑의 용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사울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전하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여, 이것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의 시도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그는 매우 직접적이어서 그에게 창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좀 더 미묘합니다. 그는 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 일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메랍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윗이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를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나를 용감히 섬기며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심이니라.

당신은 내 딸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그를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시오. 하지만 데이빗과 우리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누구지?'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이나 종족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아니, 아니. 그래서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창을 던지면 조금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David는 적어도 이번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결국 사울은 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또 다른 딸인 미갈(또는 미카엘)이 있고 그녀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랑이 낭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도해 봅시다. 내가 그 여자를 그에게 주리니, 그 여자가 그에게 올무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까 함이니라.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당신에게 내 사위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종들에게도 그를 위해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버터를 바르고 작업하세요. 다윗에게 은밀히 말하여 왕이 당신을 좋아하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수행자들은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원합니다.

모두가 당신이 왕실에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다윗에게 반복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나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David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금 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딸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신부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묘한 징후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적당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가서 다윗이 말한 것을 그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원하는 신부값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적들에게 복수하십시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기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일을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나는 그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해요.

신부값으로 블레셋 포피 100개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빗이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흥미롭습니다. 26절에.

그리고 일부 작가들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생각을 접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의 남편이 되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초점은 그녀와 그녀의 사랑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사위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주변에 떠도는 모호함의 또 다른 예입니다. 어쩌면 그가 왕실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매력적인 곳일 것입니다.

거기 매력이 있어요. 알다시피, 왕의 사위가 되어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에 오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단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할당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추측해 보세요. 그는 단지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서 그 수효 전체를 세었고, 이 사람이 단지 100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200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약속한 대로 그의 딸 미가엘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28절이 다시 나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의 딸 미카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보고 그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에도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창으로 직접 공격하고, 더욱 교묘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그에게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신부값을 도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경기장에서 쫓아내는 데 점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9장과 20장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아홉 가지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다윗을 다시 한 번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 그리고 19장에서 보게 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8장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는 먼저 다윗에게 병역의 대가로 그의 딸 메라브를 주었고, 다음에는 블레셋 포피 100개와 그의 딸 미가엘을 주면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여기 19장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절에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9장 10절에서 그는 다윗에게 다시 창을 던질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다윗을 체포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으로 가서 그를 체포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처형할 것입니다. 그는 세 번에 걸쳐 라마에 군인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결국 다윗은 두려워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세 부대의 군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조나단에게 당신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시작 부분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추종자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David에 대한 사과와 매우 잘 들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대결입니다.

선택받은 왕은 누구인가?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편에 서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미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서서 그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윗을 위해 전개되는 사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경고하고 그가 그의 편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말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데이빗의 행동은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았고 당시에는 기뻐했습니다. 어찌하여 다윗과 같은 무고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까닭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흥미 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의 이 부분 전체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글썄, 그는 그 일을 다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들을 진행하면서 그는 다른 때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그를 사울에게 데려왔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합니다.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는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다윗은 아직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나단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19장 9절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데이비드는 거짓말쟁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벽에 못 박으려고 했으나 다윗은 그를 피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창 던지기 사건에 대해 읽을 때 18장에서 일종의 예고적으로 언급된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마치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평화가 계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울은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으로는 여전히 질투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앙 이야기에서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실제 사울을 여기 표면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께서서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이러한 평화가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오는 악령이 사울을 심히 괴롭게 하니라. 그는 다시 데이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탈출한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을 감시하고 아침에 그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David의 아내이자 Saul의 딸인 Michael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David에게 경고합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데이비드를 창문으로 내려보내고 그는 도망쳤고, 그는 탈출했습니다.

Michael은 David를 언젠가 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상을 택합니다. 그녀에게 아이돌이 있다는 게 흥미롭다.

그녀는 아마도 일종의 가계 우상인 테라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을 상징하는 형상, 일종의 조상 숭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야곱 시대에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드라빔 중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Rachel은 이것들 중 하나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물론 인간형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침대 위에 덮고 눕혔습니다.

그녀는 염소 털을 가져다가 머리에 씌웁니다. 즉, 그녀는 우상을 다윗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고, 미카엘은 다윗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가 침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지체합니다.

그들은 그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아픈 침대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를 침대에 있는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들어오자 그들은 거기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속았습시다. 이것은 자연 전술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미가엘에게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적을 보내주십시오.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 원수를 보내어 그가 도망치게 하여라. 이제 Michael은 여기서 자신의 흔적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16장과 관련된 이전 수업 중 하나에서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속임수가 합법적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데이비드의 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죽여야 합니까? 즉, 그는 나를 위협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데이비드가 떠나도록 격려한 사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이 여기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사기죄로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중립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해냈다. 어쩌면 저자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쳐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는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곳은 아주 아주 가깝고 몇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울은 우리가 가서 다윗을 되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끈질긴지 보세요. 그래서 그는 한 무리의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영을 통해 군인들을 선지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이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분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이야기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패널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치 숫염소 세 마리나 작은 돼지 세 마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패널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농담으로 그들을 봅니다.

랍비, 사제, 설교자가 한 방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생활에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언합니다. 사울은 세 번째 무리를 보내어 예언합니다.

마침내 그는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울이 다가가자 그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며 옷을 벗고 그날 밤낮 내내 알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사울에게 표징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으로 선택받은 바로 그 시작에 있는 그 표징의 세 번째 단계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에 계시고 그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게 몇 가지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의 세 번째 단계는 사울이 몇몇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고,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의도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촉발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과 사울을 그의 도구이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분은 새 왕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사 사울을 선지자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앞에 있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텍스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앞의 구절이 사무엘이 사울과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고,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하라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계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선지자와 왕의 관계는 사무엘에 관한 한 끝났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되찾기 위해 그곳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이 주도한 두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구절들 사이의 명백한 모순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끈질깁니다. 20장에서 다윗은 라마의 나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는 조나단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범죄는 무엇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내가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생각에 조나단은 처음에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왕궁의 정탐꾼이 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걱정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avid와 Jonathan은 Jonathan이 그의 아버지를 시험할 시스템을 여기에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David가 식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그는 단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윗에게 알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동안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 대한 충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12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모레 이맘때에 반드시 내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리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당신을 해할 생각을 했다면 여호와께서는 요나단에게 벌을 더 내리시고 그는 이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식을 전하고 너희를 평안히 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로 죽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당신의 친절을 결코 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지면에서 다 멸절하신 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윗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을 걱정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멸하실 때, 내 가족을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므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시 포일을 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나단은 그에게 충성스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요나단도 마음과 영혼으로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을 생각해 냈습니다. 조나단은 나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표적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하인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녁을 쏘듯이 옆으로 화살 세 발을 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다음 소년을 보내서 화살을 찾으러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21절에 있으니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이리로 가져오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 당신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오십시오.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너머에 있다 하면 너는 가야 할지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리고 당신과 내가 논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의 증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 신호를 조작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사울이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틀 후에도 나타나지 않자 조나단은 데이비드가 그의 가족을 방문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사울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 패역하고 패역한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모욕합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 편에 서서 너 자신도 수치스럽고 너를 낳은 어미도 수치를 당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리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울은 생각하고, 요나단은 나의 사고방식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그는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다윗이 살아 있는 한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창을 들고 두 번째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두 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가 어디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멍청한 맹세, 기억나? 조나단이 자신도 모르게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처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군인들이 개입하여 요나단을 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나단은 맹렬한 분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수치스럽게 대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친구 데이비드 때문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그들이 준비한 대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저 너머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받은 인상은 데이비드가 숨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나단이 화살이 저 너머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것이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포옹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 아이가 간 후에 다윗은 돌 남쪽에서 일어나 요나단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세 번 절하였다. 41절.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 다음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자신이 택하신 종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는 핵심 인물로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 중에서 미래의 왕이 될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종들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의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와, 만약 당신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종들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택하신 종에 대한 헌신은 극기를 필요로 하며 때로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나단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 다윗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자기 부정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택하신 종, 대문자 s, 새로운 다윗, 이상적인 다윗,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1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12회기, 사무엘상 18장,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음입니다. 사무엘상 19장과 20장, 다윗의 아홉 가지 삶.